

열왕기상 22-1. ‘아합’의 비참한 죽음 (왕상 22:1-40)

들어가기

본 장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란 평가를 받았던 ‘아합’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움직이자고 ‘아합’에게 제안하였고, ‘아합’은 그의 말대로 400 명의 선지자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400 명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상하며, ‘아합’ 왕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아합’ 왕의 미움을 받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둔 후, 일반 병사처럼 위장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1. ‘아합’왕은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5 절)

1)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는 3 년의 평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1 절)

- 그럼 과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을까? -> 결코 아니다!!
 - 지난 20 장에서 보았듯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뜻대로 아람 왕 ‘벤하닷’과 형제의 화친을 맺으며, 그를 살려주면서 얻은 평안이었음!
- 참고로 이때 아람 왕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였음!
 - ①. 이전에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들을 돌려 줄 것!
 - ②.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 것!
- 그런데 아마도 두 가지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았던 듯!!

2) 이때 ‘아합’ 왕은 자신을 찾아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아람의 손에서 함께 되찾아 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3 절)

- 우선 2 절, ‘...,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라는 말을 주목!
 - 분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14:30,15:6, etc.)
 - 그런데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분명 지난 3 년간 남북이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당시 저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정약적으로 혼인하였기 때문!
(역대하 18:1)
- 참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는 뜻.
 - 남유다의 4 대 왕으로 25 년간(B.C.871-847) 남유다를 다스림.
 - 통치기간 동안 비록 몇 가지 실책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 ‘히스기야’, ‘요시아’ 왕과 더불어 남유다의 칭찬받는 왕으로 분류됨.

- 그럼 그렇게 칭찬받는 ‘여호사밧’ 왕이 왜 ‘아합’ 왕과 사돈 지간이 되었을까?
- > 동쪽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앗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선택!
- >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실책이었음!
- > 왜냐하면 ‘아합’의 딸로 말미암아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게 됨!

3) 아무튼 ‘아합’ 왕으로부터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자는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어떤 반응은 보였는가? (4-5 절)

- 아합 왕의 계획을 좋은 일로 여김!
 - 참고로 ‘길르앗 라못’ (Ramoath in Gilead)은 길르앗 지방 동북방에 위치한 중요한 요새!
 - ‘솔로몬’ 시대에는 제 6 지역 장관이 거주하던 곳으로 물이 많고 포도와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는 비옥한 지역이었음.
- 특별히 4 절 후반 부 주목,

‘...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 곧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을 치는 일에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협조해야만 한다는 나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선한 동기로 행한 일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일이 되었다는 것!!
 - 역대하 19 장 2 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 >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 성도는 모든 일에서 신중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 함!
- > 참고로 당시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 아람을 공격한 것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
-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대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권유했음!
 -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실정을 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

2.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 명을 모아 전쟁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6-28 절)

- 1) ‘아합’ 왕이 집합시킨 400 명의 선지자들은 누구일까? (6 절)
 - 정확히 저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음.

-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도 저들은 ‘아합’ 왕의 정책들을 결정할 때 돕는 일종의 종교적 자문위원 역할을 하던 선지자들로 추측!
 - 특별히 저들은 표면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속하는 선지자들이었으나, ‘아합’ 왕의 왕권강화를 뒷받침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던 정치적 종교인들이었을 것!
 - 그렇지 않고 만약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면, 한번이라도 ‘아합’의 폭정에 당당하게 맞서며 그의 잘못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음!!
- 저들은 결국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것을 지지함!

2)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7 절)

- 곧 당시 ‘여호사밧’은 400 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듣고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 이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 민감하게 반응했기에 400 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석연치 않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
-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 한가지!
 - 당시 ‘여호사밧’은 분명 저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이 거짓이라거나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대신 혹시 모르니 다른 선지자의 말도 한번 더 들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것!
 -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고 찾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늘 필요하지 않을까?

3) 이후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의 조언대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8-9 절)

-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 ‘미가야’란 말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
 -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아합’ 왕의 주된 비판자였음!
 - 그로 인해 ‘아합’ 왕은 평소 그를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했음!
- 특히 8 절 후반부를 주목!

‘…,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 오죽하면 ‘아합’ 왕이 그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 이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함!
 - 곧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싫든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존중되어야지,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외면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 준 것!
 - 오늘 우리도 듣기 좋은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 기울이면서 늘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어보자!

4) ‘아합’ 왕은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10-12 절)

- 10 절을 보면,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들 + 400 명의 선지자들 +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 백성들이 함께 광장에 모인 공식적인 공개회의가 열림!
 - 곧 당시 ‘아합’ 왕은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나름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회의에 ‘미가야’ 같은 선지자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
 - 물론 ‘아합’의 신하를 보내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시켰지만, 공개적인 회의는 그가 오기 전에 진행되었다는 것! ->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
- 이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라는 선지자가 400 명의 선지자들을 대표하여 예언함!
 - ‘시드기야’ 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나의 의로움이시다'는 뜻!
 - 곧 이처럼 좋은 이름의 선지자가 대표로 나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더욱 더 신뢰하며 귀 기울였을 것!
-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는 것!
 - 참고로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 + 철은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속으로서 '강함'의 대명사!
 - 곧 당시 ‘시드기야’는 ‘아합’ 왕이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강한 왕이란 사실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며,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
 -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며 예언에 확실성을 강조함!
 - 그런데 학자들은 이 같은 ‘시드기야’의 행동은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과장된 부추김이라 지적함!!
- ‘시드기야’의 말이 끝나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의 말에 동의하며 ‘아합’의 승리를 예언함!

5) 선지자 ‘미가야’를 찾아가 ‘아합’ 왕의 신하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미가야’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13 절)

- 그런데 13 절 ‘아합’ 왕의 신하의 말을 주목!
 -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 여기 '청하건대' 라는 말은 '제발 바라건대' 라는 간곡함이 담긴 말!
 - 아마도 ‘아합’ 왕은 그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미가야’를 설득하고 회유하여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답을 하도록 만들라고 명령했을 것!!
 - 그로 인해 ‘아합’의 신하는 먼저 모든 선지자들의 의견이 일치 되었음을 강조함!
 - 그 후 어떤 답을 해야 할지, 곧 ‘길하게 하소서!’ 라고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은연중에 협박했음!

6) 이에 ‘미가야’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전하겠다고 답하며, 즉시 ‘아합’ 왕을 찾아 왔습니다. (14-25 절)

- 그럼 ‘아합’ 왕을 찾아온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5 절, 전쟁에 나가 승리하라!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왕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대답함!
 - > 그러나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아합’ 왕을 비꼬는 말이었음!!
 - > 곧 왕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말이 아닌가? 라고 비꼰 것!
- 그러자 ‘아합’ 왕은 즉시 ‘미가야’의 의도를 알아차린 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구함!

- 그로 인해 선지자 ‘미가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음과 같이 전하게 됨! (17-23 절)
 - 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고, 하나님은 주인이 없는 자들을 각기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전함!
 - 이는 곧 이스라엘 군대는 지도자를 잃고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
 -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는 한번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무시함!
 - ②.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꺾어 전쟁에서 죽게 하시려고 한 영을 택하셨는데, 그가 ‘아합’ 왕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왕을 유혹하게 할 것!
 - 곧 지금 ‘아합’ 왕을 지지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저들의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
- 이때 ‘시드기야’가 나아와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모욕함! (24-25 절)
 -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수난 당하신 장면을 연상케 함!
 - 이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며 공격함!
 - > 이 말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듯 착각하는 말이 아닌가?
- 이에 대해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음!
 -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확실히 알게 될 것!
 -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자!!

7) 선지가 ‘미가야’의 모든 예언이 끝나자 ‘아합’ 왕은 즉시 ‘미가야’를 잡아 성에 가두고,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6-28 절)

- 참고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감옥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며, 문자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떡과 물을 의미함
- 이때 ‘미가야’는 온 백성들에게 ‘아합’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자신의 말이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기억하라고 외침!

3.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 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죽고 말았습니다. (29-40 절)

1) ‘아합’ 왕은 왕복을 벗고 변장하여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30 절)

- 왜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을까?

2) 아람 왕은 지휘관 30 명에게 오직 ‘아합’ 왕을 먼저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1-33 절)

- 이는 전쟁의 전략을 넘어 3 년전 ‘아합’ 왕에게 당한 굴욕을 이번에 반드시 갚겠다는 아람 왕의 결심이 작용된 듯! + 나아가 ‘아합’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된 것!

- 이와 같은 명령을 전달 받은 아람 왕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판단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음!!
 - 그러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알리며 도망침!
 - 아람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지 않고 돌아감!

3) 한편 ‘아합’ 왕은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4-38 절)

- ‘무심코’란 말의 히/원 ‘레투모’는 '별 생각 없이, 되는대로' 라는 뜻
 - 곧 당시 아람 병사는 누가 맞아도 맞겠거니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화살 하나를 날렸다는 것!
 - 그런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꿰뚫게 되었다는 것!
- ‘갑옷 솔기’란 가슴부위와 허리와 하복부를 가리도록 만든 갑옷부위를 연결하는 부위!
 - 그런데 아람 병사 하나가 아무렇게나 날린 화살 하나가 하필이면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파고 들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대로 이루시려고 역사하신 결과일 것!
- ‘아합’ 왕은 마차를 끄는 병사에게 급히 전장을 떠나자고 명령했지만, 전쟁이 맹렬한 상황이라 결국 안전한 곳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마차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음!
 - 결국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날 밤이 되기 전 사마리아로 퇴각하게 됨!
- 이후 ‘아합’ 왕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돌아오자마자 장사되었고, 그의 피로 물든 마차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 (37-38 절)
 -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벤하닷’을 풀어 준 ‘아합’에게 그의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
 - 특히 ‘아합’의 피 묻은 마차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겼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매우 치욕스러운 죽임이었음을 상징하는 것!!

4) ‘아합’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되었습니다.(19-40 절)

- ‘아하시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
 - ‘아합’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제 8대 왕으로 즉위한 ‘아하시야’는 불과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됨.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4.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